

김주형 “버티면서 144경기 뛰겠다”



KIA 3루수로 타격·수비 활약...이범호 공백 메워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주형 앞에는 오랜 시간 ‘만년 유망주’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다. 그는 동성고를 졸업한 2004년 3억원이 라는 계약금을 받고 KIA 유니폼을 입은 ‘특급 유망주’였다. 팀은 물론 리그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거포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더딘 성장세로 김주형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매년 기대와 실망 사이를 오가던 그는 지난해 유격수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팀 사정상 그리고 생존을 위해 유격수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실패. 하지만 그는 지난 시즌 내야 전 포지션은 물론 우익수 자리까지 들어가면서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다.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홈런도 증가했다. 지난해 135경기 출전한 그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넘어 19번 그라운드를 돌았다. 공·수에서 의미있는 활약을 한 그는 프로 14년 차 만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달라진 김주형의 한 축이 됐다. 결혼과 함께 자신을 똑같은

아들을 얻은 그는 묵직한 책임감으로 야구를 다시 대하게 됐다. 올 시즌엔 ‘변화구 대처’라는 기술적인 진화가 얹혀졌다. 올 시즌 타격의 방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맞추는 데 주력한다”이다.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무조건’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무조건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그의 변화된 모습은 변화구 대처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점으로 꼽히던 크고 일관된 스윙, 그로 인해 수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 많이 줄었다. 덕분에 타격 자세가 무너진 가운데에서도 공을 끌어내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김주형은 “변화구 승부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한 손을 놓기도 하는 등 맞추는 타격을 하고 있다. 일단 맞춰야 결과가 나온다. 공에 대처할 수 있는 스윙 궤도 등을 생각하면서 투수와 싸움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머리와 손목이 함께 움직이면서 정교함이 더해졌다. 김주형이 지난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손목이다. 손목을 이용하면서 더 넓게 존

을 활용하게 됐고, 타구의 질을 높게 했다. 수비의 집중력도 좋아지면서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상대 추격을 끊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무엇보다 김주형의 움직임이 반가운 것은 KIA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혀왔던 ‘부상 공백’을 지웠다라는 것이다. 사실 올 시즌을 시작할 때만해도 김주형에게 보장된 자리는 없었다. 주전 2루수 안치홍의 복귀와 최형우의 영입으로 선발 라인업 자리가 빠르게 갔다. 비슷한 처지의 서동욱까지 김주형은 새로운 경쟁에 직면했다. 하지만 개막 첫 경기 만에 주전 3루수 이범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주형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김주형의 안정감 있는 활약 속 한층 강해진 타선의 힘은 부상을 잊게 했다. 더는 부상이 팀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지 않게 됐다. 언제 또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김주형은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겠다”는 각오다. 김주형은 “팀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다. 범호형이 돌아올 때까지 잘 버티는 게 우선 목표다. 부상 없이 버티면서 역할을 하고 싶다. 144경기가 내 목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승환 간파당했다...3경기 연속 실점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3경기 연속 실점해 우려를 자아냈다. 오승환은 12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외 방문 경기에서 3-7로 뒤진 8회 등판해 1이닝 동안 안타 2개를 맞고 1점을 줬다. 세인트루이스는 3-8로 패했다. 3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처음으로 등판해 3점 홈런을 맞고 세이브 기회를 날린 오승환은 당시 1.2이닝 동안 3실점 했다. 오승환은 10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도 1이닝 동안 홈

런 1개를 내주 1실점 했다. 이날도 세이브와는 상관없이 등판해 구위를 점검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첫 두 타자를 요리한 오승환은 브라이스 하퍼에게 좌익수 쪽 2루타를 내줬다. 시속 154km짜리 광속구를 하퍼가 잘 공략했다. 이어 대니얼 페피에게 중견수 쪽 2루타를 허용해 실점했다. 오승환 빠른 볼 구속이 나쁘지 않은 편임을 고려할 때 상대 팀 분석에 간파당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MLB 구단 가치 평가

뉴욕 양키스 20년째 1위

뉴욕 양키스가 20년 연속 미국프로야구(MLB)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구단으로 뽑혔다. 11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양키스의 구단 가치는 작년 조사 때보다 9% 오른 37억 달러(4조2383억 원)로 집계돼 다른 구단들을 압도했다. 2위는 류현진의 소속 팀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로 작년보다 10% 증가한 27억5000만 달러(3조1500억 원)다. 양키스의 라이벌인 보스턴 레드삭스

가 27억 달러로 3위에 올랐고 지난해 무려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의 한을 풀 시카고 컵스(26억7500만 달러)가 4위를 차지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26억5000만 달러)가 5위, 뉴욕 메츠(20억 달러)가 6위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구단 중 팀 가치가 가장 낮은 구단은 탬파베이 레이스(8억2500만 달러)로, 양키스와 비교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슬랜드 에이스(8억8000만 달러), 신시내티 레즈(9억1500만 달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9억2000만 달러)도 구단 가치가 낮은 편이었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평균 가치는 15억4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9%나 증가했다. /연합뉴스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유벤투스 디발라 2골



이탈리아 명문구단 유벤투스가 ‘MSN’ 공격라인이 버티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리턴 매치’에서 먼저 웃었다. 유벤투스는 12일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3-0으로 완승했다. 유벤투스는 2014-2015시즌 대회 결승에서 바르셀로나와 맞붙어 1-3으로 졌던 아픔을 되갚았다. 이날 대결은 바르셀로나의 ‘황’ 유벤투스의 ‘방패’의 맞대결로 관심이 쏠렸다. 주도권을 잡은 것은 리그에서 홈 32경기 연속행진을 달리던 유벤투스였다. 유벤투스는 리오넬 메시(사진)-수아레스-네이마르로 구성된 바르셀로나 MSN 공격진을 묶었고, 파울로 디발라의 멀티골로 앞서나갔다. 디발라는 전반 7분 후반 콤비플레이로 오른발로 슈팅하며 연결한 공을 오른발로 받은 뒤 왼발로 터닝 슈팅, 골망을 흔들었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21분 이니에스타가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오른발 슈팅했지만 ‘거미손’ 잔루이지 부폰의 선방에 막혔다. 반격에 나선 유벤투스는 1분 뒤 마리오 만주키치가 왼쪽 측면 돌파 후 문전으로 올린 공을 디발라가 왼발 슈팅, 추가골을 넣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초반 메시와 이니에스타가 연속 슈팅을 때리는 등 점수유를 끌어올리며 만회골을 노렸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후반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조르조 키엘리니가 헤딩슛으로 추가골까지 넣으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양 팀의 8강 2차전은 2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유벤투스(이탈리아)의 파울로 디발라(왼쪽)가 12일 열린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골을 넣은 뒤 후안 콤바라도와 세러모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축구 “亞컵 ‘탑5’ 들고 프랑스 월드컵 가자”

내년 4월 요르단서 본선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 16강에 진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한국 여자축구가 2019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영광 재현을 꿈꾼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1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B조 예선 최종전에서 혼자 두 골을 터뜨린 지소연(웹시 레이디스)과 한 골씩을 뽑은 유영아(구미스포츠타운), 조소연(인천현대제철)을 앞세워 우즈베키

스탄을 4-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3승1무(승점 10)로 북한과 동등이 된 한국은 골득실(한국 +20, 북한 +17)에서 앞서 조 1위에 주는 아시안컵 본선 티켓을 차지했다. 선제골은 유영아의 발끝에서 나왔다. 유영아는 전반 21분 환상적인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꿰뚫었다. 소속팀 일정에도 구단을 설득해 ‘평양 원정’에 참가한 지소연도 2분 뒤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날 A매치 100경기째를 채우면서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캡틴’ 조소연도 전반

42분 우즈베키스탄의 골망을 흔들었다. 마무리는 지소연의 몫이었다. 지소연은 후반 8분 감각적인 슈팅으로 4-0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표팀은 2019 프랑스 월드컵 예선을 겸해 내년 4월 요르단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에서 8개 참가국 중 5위 안에 들면 월드컵 본선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이 프랑스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면 2003년 미국 월드컵과 2015년 캐나다 월드컵에 이어 세 번째 월드컵 본선행이 된다. 첫 출전하던 미국 월드컵 당시 브라질,

노르웨이, 프랑스와 한 조가 된 한국은 3전 전패로 첫 도전을 마무리했다. 1-7로 대패했던 마지막 노르웨이전에서 김진희가 사상 첫 골을 넣은 데 만족해야 했던 시기다. 한국은 강호들이 즐비한 아시아 무대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2007년 중국월드컵, 2011년 독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10년 넘게 월드컵 본선과 인연이 없었던 한국에 다시 기회가 온 것은 캐나다 월드컵이었다. 한국은 브라질에 패했지만, 코스타리

카와 우세한 경기 끝에 비겼고, 스페인전 역전승으로 대회 첫 승과 함께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프랑스에 0-3으로 져 8강 진출은 좌절됐지만, 금의환향하기 충분한 성적이었다. 이후 ‘그들만의 리그’였던 여자축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캐나다 월드컵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월드컵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월드컵 본선행 관문인 이번 대회 조 추첨 결과 북한과 한 조에 속하자 프랑스월드컵 출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태극남자들은 평양에서 열린 북한전에서 1-1로 비긴 뒤 다른 국가들과의 경기에서 다득점에 성공하며 꿈을 이뤄냈다. /연합뉴스